

이민자 서사에 나타난 세대 간 문화적 돌봄 양상 분석 연구

- 영화 <미나리>와 소설 <호랑이를 뒤통에 가두면>을 중심으로

이민정*

1. 서론
2. 수용을 통한 상호 돌봄과 건강한 자아의 형성: <미나리>
3. 문화 전승을 통한 돌봄과 혼종적 정체성의 확립: <호랑이를 뒤통에 가두면>
4. 결론

국문초록

이 연구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이민자 서사에서 공통적으로 세대 간 문화적 돌봄이 나타난다고 보고, 이를 기제로 텍스트를 분석하여 '돌봄'이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 주는 의미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대중서사가 제시한 새로운 시대에 요청되는 돌봄 양상의 청사진을 명료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상 작품들은 해외에 정착한 한인 가족 중에서도 해외에서 태어난 이민 3세대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그들에게는 낯선 한국 문화를 가진 할머니를 만나 서로 돌봄을 주고받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특히 조손(祖孫) 관계와 서로 다른 문화라는 환경에서 기인하는 세대-문화 즉, 종적-횡적 교차 인물들이 주고받는 돌봄의 의미를 보다 풍성하게 구현하고 있다. <미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박사 수료

나리〉의 순자와 〈호랑이〉의 애자가 이민 3세대의 손자들에게 행하는 돌봄의 양상을 살펴보면 자신이 경험한 한국의 전통 문화만을 강조하거나, 그들 세대의 가치관을 주입하는 일방향으로 이루어지는 돌봄이 아니었다. 피돌봄자인 손자에게 전념하며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너는 강한 아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피돌봄자는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돌봄을 행할 수 있는 존재로 성장하며 상호 돌봄의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피돌봄자가 돌봄을 수용할 때 비로소 돌봄 관계가 완성됨을 이야기하는 나딩스의 돌봄 윤리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 살피고자 하는 돌봄자와 피돌봄자는 수용을 통해 상호 돌봄으로 나아가 연대의 주체가 된다.

최근의 돌봄 논의는 가정의 영역을 넘어서 사회적·제도적 차원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필요’를 기반으로 하는 제도적 차원의 돌봄과 함께 타자의 존재를 수용하고 진정한 마음을 건네는 돌봄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이런 현실에서 문화와 세대의 간극을 메워 서로 돌봄을 주고받는 이민자 서사를 살펴봄으로써 진정한 ‘돌봄’의 방향성을 탐색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제어: 이민자 서사, 세대-문화의 교차, 문화적 돌봄, 상호 수용, 정체성, 연대)

1. 서론

최근 몇 년 새 이민 이후 세대의 작품이 주류 미국 사회에서 인정받으며 한국에서도 많은 화제가 되었는데, 그 중심에 영화 〈미나리〉와 소설 〈호랑이를 뒤통에 가두면〉¹⁾이 있다. 영화 〈미나리〉는 재미 한인 2세대인 정이삭 감독의 자전적 이야기를 바탕으로, 1980년대 미국 아칸소에 정착하기 위

해 고군분투하는 한인 가족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다. 2020년 미국 선댄스 영화제에서 극영화경쟁부문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하고, 2021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등 6개 부분 후보에 올랐으며 극중 순자를 연기한 배우 윤여정이 최우수 여우조연상을 수상하며 미국 현지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²⁾

이후 학계에서는 <미나리>의 서사나 인물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는데, 대체로 선행연구들은 이주민 서사로서 <미나리>에 나타난 공간과 인물, 상징에 주목하여 논의하고 있다.³⁾ 주로 불안정한 이주민의 삶을 생명력과 적응력이 강한 '미나리'를 통해 극복하는 영화의 주제에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한 가족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어 가족주의나 가족 이데올로기를 통해 낭만성을 보이는데 급급하여 공적 시스템의 부재와 같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도외시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제국주의'와 '남성 중심 가족주의'에 관한 비판 역시 제기된 바 있다.⁴⁾

-
- 1) 태 켈러, 『호랑이를 뒷에 가두면』, 강나은 옮김, 돌베개, 2021.
 - 2) 위키피디아, 미나리(영화), [https://ko.wikipedia.org/wiki/%EB%AF%B8%EB%82%98%EB%A6%AC_\(%EC%98%81%ED%99%94\)](https://ko.wikipedia.org/wiki/%EB%AF%B8%EB%82%98%EB%A6%AC_(%EC%98%81%ED%99%94)) (최종검색일 : 24.08.15.)
 - 3) 강옥희, 「이산·동화·개척의 서사-〈미나리〉」, 『국제한인문학연구』, 제30호, 국제한인 문학회, 2021; 김미영, 「인물 분석을 통해 본 영화 〈Minari〉(2020)의 구조와 의미」, 『인문논총』, 제79권 3호,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2; 안미영, 「영화 〈미나리〉에 구현된 '가족 신화' 분석 - 토포필리아의 구현과 가정(家長)의 수행성」, 『비평문학』, 제81호, 한국비평문학회, 2021; 이지은·이주봉, 「〈미나리〉에 구현된 헤테로토피아와 공간적 성격」, 『현대영화연구』, 제50권, 한양대학교 현대영화연구소, 2023; 주현식, 「영화 〈미나리〉의 진정성과 현대의 윤리학」, 『스토리앤이미지텔링』, 제23집, 건국대학교 스토리앤이미지텔링연구소, 2022; 진수현, 「영화 〈미나리〉에 재현된 이주민의 적응과 생존의 삶」, 『다문화콘텐츠연구』, 제44집,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23; 최수용, 「미주 한인 이주서사의 상징 활용 양상」, 『문화와 융합』, 제44권 4호, 한국문화 융합학회, 2022; 최영희·유봉근, 「자전적 영화로서 정이삭의 〈미나리〉(2020) 연구 : 벤야민의 '삶을 구성하는 힘' 개념을 중심으로」, 『아시아영화연구』, 제15권 1호, 부산대학교 영화연구소, 2022.
 - 4) 강나경, 「할리우드의 제국주의적 응시 : 영화 〈미나리〉를 중심으로」, 『아시아영화연

분명 <미나리>가 이민자 가족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지만, ‘이민자’들만의 특수한 이야기라고 보기 어려우며 ‘가족’으로 대상을 제한하는 것 역시 <미나리>가 함의하는 바를 좁히는 것이다. <미나리>가 전 세계적 공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 가족의 이야기가 특정 민족 혹은 세대에 한정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⁵⁾

소설 <호랑이를 뒹가두면>(이하 <호랑이>)은 한국계 미국인 태 켈리의 장편 소설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아동문학상인 뉴베리상(Newbery Medal)의 2021년 수상작으로 작가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쓰인 작품이다.⁶⁾ 권위 있는 아동문학상을 받으며 이목을 끌었기에 한국에서도 이 작품에 대한 여러 편의 연구가 진행되었다.⁷⁾ 선행연구

구, 제15권 1호, 부산대학교 영화연구소, 2022; 이채원, 「영화 <미나리>에 나타난 디아스포라의 문체적 징후들과 내포된 담론들」, 『한국문예비평연구』, 제77권,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23.

- 5) 한귀은은 <미나리>의 인물들이 경험하는 주체화 과정에 주목하여 팬데믹 시대에 요구되는 가치를 담고 있는 영화라고 설명하며 <미나리>의 의미상 외연을 ‘미국’, ‘이민자’, ‘가족’에 한정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오히려 <미나리>는 가족을 넘어서는 이야기로 가족이테올로기와도 전혀 다른 지점에 있음을 역설한다(한귀은, 「<미나리>, 취약한 주체의 탈중심화와 윤리적 전회」, 『대중서사연구』, 제28권 1호, 대중서사학회, 2022, 73-74쪽).
- 6) <옛날 옛적 담배 피우던 호랑이, 내겐 정체성을 물려줬지>, 『경향신문』, 2022.10.10., 접속일: 2024.08.15., https://www.khan.co.kr/culture/book/article/202210102232005?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utm_campaign=sharing.
- 7) 김영선, 「디아스포라 소설에서 ‘구조’와 ‘원형’의 의미 - 태 켈리의 장편소설 『호랑이를 뒹가두면』을 중심으로」, 『리터러시 연구』, 제12권 6호, 한국리터러시학회, 2021; 김유미, 「한국계 미국 청소년의 정체성과 미국 사회의 불공정성 - 『호랑이를 뒹가두면』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제59호, 이화어문학회, 2023; 류연지, 「양성성의 획득을 통한 자기 형성: 『호랑이를 뒹가두면』을 중심으로」, 『현대영미어문학』, 제42권 1호, 현대영미어문학회, 2024; 우정인, 「소설 『호랑이를 뒹가두면』에 나타난 옛이야기의 힘과 리미널리티 공간」, 『세계문학비교연구』, 제78권, 세계문학비교학회, 2022; 위중선, 「『호랑이를 뒹가두면』에 나타난 마술적 사실주의 활용과 의의」, 『아동청소년문학연구』, 제30호,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22; 조성미, 「『호랑이를 뒹가

들은 주로 한국계 미국인인 사춘기 소녀의 자아정체성 찾기에 관심을 가지고, 융의 이론을 통해 ‘호랑이’를 개인의 그림자이자 문화적 ‘집단 무의식’으로 해석하며 분열된 자아정체성을 융합해나가는 이야기의 힘에 관한 논의로 수렴하고 있다.

이 두 작품은 모두 한국계 미국인이 자신의 유년 시절과 할머니에 대한 기억을 바탕으로 썼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 때문에 두 작품에는 이민자가 경험하는 한국 문화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으며, 조손(祖孫)의 관계 맺기가 중요한 모티프로 작동하고 있다. 물론 궁극적인 주제의 측면에서 영화 <미나리>는 이민 가정의 정착을, 소설 <호랑이>는 이방인 정체성을 가진 사춘기 소녀의 자아정체성 찾기를 다루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부분도 존재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근 시일 내에 대중과 평단으로부터 모두 인정 받은 서사물이 그 장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할머니와 한국 문화’라는 키워드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 작품들이 주목하고 있는 정서나 관계는 현재 한국 사회에 적용해 본다면 오히려 상당히 과거의 모습에 가깝다.⁸⁾ 그도 그럴 것이 <미나리>는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호랑이>의 작가 태 켈러의 경우에도 한국인인 자신의 외할머니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호랑이>의

두면』에 나타난 두 세계의 갈등과 화해 : 융(Jung)의 분석심리학을 바탕으로,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제13권 1호,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2024; 황혜진, 「호랑이 여자들이 보여주는 고전문학교육의 길- 호랑이를 뒀에 가두면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47호,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23.

8) 「<호랑이를 뒀에 가두면>의 경우, 오히려 현재의 한국 문화와는 동떨어진 문화를 한국 문화로 그린다는 점에서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점도 물론 존재한다.」<옛날 옛적 담배 피우던 호랑이, 내겐 정체성을 물려줬지>, 『경향신문』, 2022.10.10., 접속일: 2024.08.15., https://www.khan.co.kr/culture/book/article/202210102232005?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utm_campaign=sharing.

서사를 떠올렸다고 한다.⁹⁾ 그럼에도 미국과 한국 사회에서 두 작품이 의미 있게 다뤄지는 이유는 시대와 국경을 넘어선 가치에 대해서 논하는 ‘보편’의 정서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전히 유효한 ‘보편’의 정서를 ‘세대 간 문화적 돌봄’으로 명료화하고자 한다.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롭고 SNS 등의 발달로 인해 지리적, 문화적 경계가 희미해지며 사회 구조적으로 한 개인에게 연결된 사회의 지점들이 복잡적이고 다양해짐에 따라 ‘돌봄’은 어느 때보다 현 시대에 주목받고 있는 키워드이다. ‘가족’과 ‘전통’에 기대어 돌봄의 책임을 가정에 전가해왔던 전통적인 분위기는 외환위기 이후 생산 주위에 입각하여 아동, 노인 등 다양한 인구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이는 ‘돌봄’을 생산성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돌봄을 주고받는 관계 당사자들을 사회적으로 주변화하여 돌봄의 가치를 평가절하한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¹⁰⁾

이렇듯 ‘돌봄의 사회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돌봄을 ‘필요’에 입각해 바라보기보다는 “누군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생명의 취약성에 대한 염려”로부터 돌봄의 관계적 의미가 도출되어야 한다는 지적¹¹⁾은 지속 가능한 돌봄을 위해서 귀 기울여야 할 지점이다.

본 연구의 논의는 이전과 같이 가족 중심의 돌봄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돌봄이 중요한 사회적 의제이고, 구조적·제도적 장치를 통해 현대의 많은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9) <태 켈러·스토프 차...뿌리 찾아온 한국계 작가들의 소설>, 『연합뉴스』, 2021.04.28., 접속일: 2024.08.15., <https://www.yna.co.kr/view/AKR20210427143500005>.

10) 마경희, 「돌봄의 정치적 윤리: 돌봄과 정의의 이원론을 넘어」, 『한국사회정책』, 제17권 3호, 한국사회정책학회, 2010, 322-323쪽.

11) 허라금, 「관계적 돌봄의 철학: ‘필요의 노동’을 넘어 ‘정치적 행위’로」, 『사회와 철학』, 제35호, 사회와철학연구회, 2018, 84쪽.

다. 그렇다면, 사회와 제도의 영역으로 넘어간 돌봄을 넘어서서 세대 간 단절이 심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 필요한 진정한 돌봄의 형태는 무엇일까요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한 때이다. 이는 비단 이민자 사회에서만 필요한 고민은 아닐 것이다. 다만, 맥락의 특수성으로 인해 먼저 그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 인물을 그려낸 이민자 서사를 통해 새로운 돌봄과 세대 간 화합의 모습을 길어내보고자 한다.

2. 수용을 통한 상호 돌봄과 건강한 자아의 형성: <미나리>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미나리>와 <호랑이>는 모두 본래의 삶의 터전을 떠나 낯선 땅에 정주한 경계인들의 삶¹²⁾을 다루는 이민자 서사이다. 또한 조부모, 부모, 자녀 세 세대가 함께 지내는데 그중에서도 조부모와 자녀 세대의 돌봄 관계가 두드러진다. 다른 세대와 다른 문화를 가진 이들이 어떻게 돌봄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는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나딩스(Noddings)의 돌봄 윤리를 중심으로 탐색해 볼 것이다.

‘돌봄(Care)’은 인간의 근원적인 ‘취약성’과 ‘상호의존성’을 전제하는 개념이다(Kittay, 1998; Held, 2006; Tronto, 2015; 김희강, 2022).¹³⁾ 돌봄의 개념을 철학적으로 최초로 정의한 메이어옴(Mayeroff)은 “다른 사람이 스스로 행동할 수 있도록 성장시키는 일”¹⁴⁾을 돌봄이라 정의했다. 이

12) 장희권, 「경계넘기의 서사적 재현으로서의 디아스포라 문학」, 『독일언어문학』, 제71권, 한국독일언어문학회, 2016, 186쪽.

13) 이형빈, 「돌봄의 교육’을 위한 시론: 교사-학생 관계, 학교문화, 교육과정으로서의 돌봄」, 『교육비평』, 제52호, 교육비평, 2023, 104쪽.

14) 이혜정, 「나딩스의 보살핌 윤리 연구」, 『인문학연구』, 제7권, 한국외국어대학교 철학문화연구소, 2002, 208-209쪽.

후 잉스터(Engster)는 사회로 확장하여 “사람들이 사회에서 생존, 발달, 기능할 수 있도록 이들이 생물학적인 필요를 충족하고 기본적인 역량을 발달·유지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¹⁵⁾ 돌봄의 개념을 최초로 윤리적 영역으로 가져온 것은 길리건(Gilligan)으로 그는 돌봄을 여성의 도덕적 사유 모형으로 규정¹⁶⁾하였다. 헬드(Held) 역시 돌봄을 윤리적 측면에서 고찰하였는데, 그는 “돌봄 윤리의 초점은 우리가 특별히 책임져야 할 누군가의 필요에 응답하는 도덕적 각성”¹⁷⁾이라 이야기하였다.

나딩스 또한 ‘돌봄’ 개념을 윤리적 영역에서 다루고 있는데, 나딩스의 돌봄 윤리는 “관계 중심의 돌봄 윤리”라 정리할 수 있다. 특히 ‘수용성(Receptivity)’은 “관계 중심의 돌봄 윤리”의 핵심 개념으로 나딩스는 돌봄 관계를 형성하는 돌봄자와 피돌봄자 모두에게 ‘타자를 수용’하는 자세를 요구하기 때문이다.¹⁸⁾ 타자를 대하는 태도는 ‘전념(Engrossment)’을 통해 설명할 수 있는데, 전념은 타자에 대한 개방되고 비선택적인 수용성¹⁹⁾으로 있는 그대로 타자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한편, 돌봄자가 전념을 통해 피돌봄자에게 돌봄을 행하더라도 피돌봄자가 돌봄자의 돌봄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들의 관계에서 돌봄은 완성될 수 없다. 이것이 피돌봄자가 갖는 수용성이다. 다시 말해, 나딩스는 돌봄자와 피돌봄자 모두에게 ‘수용성’이 요구되며, 둘의 상호적인 관계를 통해서야 마침내 돌봄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관계 중심의 돌봄 윤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미나리〉는 정이삭 감독의 자전적인 기억을 바탕으로 한 영화로

15) 이형빈, 앞의 글, 107쪽.

16) 이혜정, 앞의 글, 209쪽.

17) 이형빈, 앞의 글, 107쪽.

18) N. Noddings, 『배려』, 한평수 역, 천지, 2009, 46-47, 87쪽.

19) 남미순, 「나딩스의 여성중심적 돌봄 윤리를 넘어서」, 『범한철학』, 제81권 2호, 범한철학회, 2016, 332쪽.

1970-80년대를 배경으로 미국 아칸소에 정착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한인 가족의 이야기를 담아 그려 낸다. 제이콥과 모니카는 아메리칸 드림을 좇아 미국에 자리를 잡고 앤과 데이빗이라는 두 아이들을 키우는 한인 부부이다. 제이콥은 미국 땅에서 한국의 농작물 농사를 지어 성공하고 싶다는 열망이 큰 인물로 이를 이루기 위해 트레일러로 거처를 옮겨 넓은 땅에서 농사를 짓고, 네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제이콥과 모니카는 병아리를 감별하는 일을 병행하며 살아간다. 이후 모니카의 엄마인 순자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 제이콥과 모니카가 일하는 동안 집에서 데이빗, 앤과 시간을 보낸다.

(한국에서 가져온 한약을 달이는 장면)

순자: 좋은 거 다 들어갔어. 녹용도 들어가고, 다 들어갔어

모니카: (놀라며) 아휴, 우리 엄마 돈 많이 썼겠네. 데이빗은 좋겠다~

순자: (약을 데이빗에게 건네며) 베이비, 먹어봐

데이빗: (약이 든 컵을 밀어내며) 싫어요

(모니카의 성화에 결국 약을 먹은 데이빗)

데이빗: 할머니, 다시는 이런거 never ever 가져오지 마세요

제이콥과 모니카에게는 일하러 나가며 보호자 없이 홀로 남은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순자가 고맙겠지만, 설사 할머니라 할 지라도 앤과 데이빗에게 순자는 반갑고 달가운 존재는 아니었다. 그러한 데이빗의 거부감은 영화 속 여러 장면을 통해 제시된다. 트레일러에 방이 많지 않아 순자가 데이빗의 방에서 함께 자야 하는 상황에 데이빗은 “할머니한테 한국 냄새나!”라고 이야기하며 순자의 곁에 가기를 꺼려한다. 하지만 앤과 데이빗은 한국에 가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데이빗의 거부감은 ‘한국 냄새’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온 할머니’에 대한 거부감이라 볼 수 있

다. 이때, 순자에 대한 데이빗의 거부감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 바로 둘 사이의 ‘문화’ 차이이다.

순자는 그야말로 전형적인 한국 할머니의 성격을 가진 캐릭터이다.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하게 태어난 손자 데이빗을 위해 한국에서 한약을 달여와 챙겨 먹이고, 타국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 한국 식재료를 챙겨가고, 힘들게 모든 돈을 딸에게 몰래 건네는 모습들이 한국의 관객들에겐 낯설지 않은 모습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에서 나고 자란 데이빗에게 ‘할머니’라는 존재는 손자에게 맛있는 쿠키를 만들어주고, 나쁜 말을 하지 않고,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데이빗은 순자를 “진짜 할머니 같지 않은 사람”이라 느끼게 된다. 심지어 순자는 데이빗과 앤의 모어인 영어도 잘 하지 못해 아이들의 대화를 오해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도 보이게 된다.

영어 문화권에서 전형적으로 여겨지는 할머니의 모습도 아닐뿐더러 언어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순자의 돌봄은 데이빗에게는 낯설고 불편한 것으로 다가온다. 누나인 앤이 자기는 탄산음료를 마시며 데이빗에게는 “네 건 저기 있잖아”라며 한약을 건넬 때, 데이빗은 한숨을 쉬고 할머니를 원망스럽게 쳐다보며 “다시는 가져오지 마세요”라고 말한다. 순자의 한약은 한국 문화에선 아픈 손자에 대한 할머니의 염려가 담긴 돌봄의 표현이지만, 데이빗에는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순자는 데이빗에게 계속해서 장난을 치고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탄산음료를 먹자고 제안하며 가까워지려 노력하지만, 데이빗은 좋아하는 탄산음료조차 거부하며 순자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주지하였듯, 나딩스의 돌봄 관계에서 돌봄을 행하는 돌봄자 만큼이나 피돌봄자 역시 중요한 주체로 자리매김한다. 돌봄자는 타자에의 전념이 필요하고 피돌봄자는 돌봄자의 돌봄을 수용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순자와 데이빗의 관계에서 돌봄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병아리 감별 일을 하는 부모님이 모두 나간 집에서 조부모인 순자가 미성년자인 데이빗과 앤의 보호자로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듯 보이지만, 데이빗은 순자의 돌봄을 수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사 후, 트레일러로 뛰어가는 데이빗과 앤)

제이콥: 뛰지 마 데이빗

데이빗: 할머니, 이렇게 걸으면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순자: 그래? 아이고 야 그러느니 뛰겠다 아휴. 뛰면 안 돼서 그렇게 걷는

거야? 뛰고 싶지?

데이빗:

순자: 우리 할머니하고 저 나무 있는 데까지 같이 뛰어 볼까?

데이빗: (가슴에 손을 올리며) 뛰면 안 될 것 같아요

순자: 아아 괜찮아 괜찮아 그냥 가자. 자 천천히. 자 천천히 가자

(손 잡고 걷는 둘의 모습)

순자: 조심, 조심,

한편, 순자가 데이빗을 대하는 태도를 살펴보면 다른 가족들의 그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인다. 데이빗은 선천적으로 심장이 매우 약하게 태어난 아이이기 때문에 영화 초반부터 가족들은 데이빗이 무리한 신체 활동을 하지 못하게 제한한다. 하지만 종종걸음으로 걸으며 “할머니, 이렇게 걸으면 나 빨리 갈 수 있어요”라고 하는 데이빗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듯 데이빗은 누구보다 빠르게 달리고 싶다는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데이빗의 마음을 알아주는 존재는 순자가 유일했다.

또한 데이빗에게는 절대 무거운 것을 들지 못하게 했던 모니카와 달리

순자는 트레일러에 물이 끊기자 데이빗과 함께 시냇가로 가서 물을 길어 오며 데이빗이 무거운 양동이를 옮길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일에 관한 모니카와 순자의 대화를 살펴보면, 모니카는 “개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라며 걱정하지만, 순자는 “네 생각보다 데이빗은 훨씬 튼튼해”라고 답하며 데이빗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

돌봄자에게 돌봄은 타자와 ‘함께 느낌’을 포함²⁰⁾하지만, 이는 ‘동일한 감정을 느낀다’는 뜻의 ‘동감’과는 다르다. 동감은 ‘나를 대상에게 투사하여 대상을 충분히 이해하게 됨’을 의미하지만, 나딩스의 ‘함께 느낌’은 수용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타자를 분석하고 이를 나에게 대입해 ‘나라면 어떻게 느낄까’ 질문하며 타자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투사)이 아니라, 그저 타자를 자신 속으로 받아들이고(수용) 타자와 함께 보고 느끼는 것이다. 이를 나딩스는 ‘전념’이라 설명한다.²¹⁾

그렇다고 피돌봄자의 응석을 받아주는 것이나 행동과 성취에 대한 책임을 포기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은 진정한 수용이라 보기 어렵다. 오히려 돌봄자의 수용성은 피돌봄자의 수용 능력을 유지 및 증대시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²²⁾ 따라서 데이빗에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남들처럼 뛰고 싶어 하는 데이빗의 마음을 함께 느끼고 그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해볼 수 있게 하는 순자의 모습은 돌봄자로서 타자를 수용해 전념하고 있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그러한 순자의 믿음에 답하기라도 하듯, 데이빗의 심장 검사를 위해 찾은 병원에서 의사는 기적적으로 심장에 난 구멍이 작아졌다고 알려주며 이제는 수술을 할 필요도 없다는 소식을 전한다. 그동안 매일같이 청진기

20) N. Noddings, 앞의 책, 44쪽.

21) 위의 책, 44-50쪽.

22) 위의 책, 88쪽.

를 통해 데이빗의 심장 소리를 확인했던 모니카는 점점 소리가 커지자 걱정하면서 데이빗에게 심한 신체 활동을 하지 못하게 막아왔다. 이에 모니카는 “데이빗의 심장 소리는 더 커졌어요”라고 이야기하며 걱정하지만, 의사는 “구멍이 작아지면 소리가 더 커져요. (소리가) 클수록 더 좋은 거죠”라고 답하며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든 (데이빗의 심장에) 정답이니 그대로만 하세요”라는 방향성을 제시해준다. 물론 순자에게 의학적 지식까지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돌봄자로서 데이빗에게 전념하여 그를 이해하고, 그런 순자의 돌봄을 받아들인, ‘수용’에 기반한 둘의 돌봄 관계는 결국 데이빗을 더 건강하게 이끌었다.

(죽음을 걱정하며 잠 못드는 데이빗)

순자: 네가 왜 벌써 그런 걱정을 해?

데이빗: 나 죽기 싫어요

순자: 이리와, 이리와 데이빗. (침대에서 내려가 순자 품에 안기는 데이빗) 할머니가 너 죽게 안 놔둬, 누가! 감히 우리 손자를 무섭게 해!!

순자와 데이빗이 서로를 ‘수용’한 이후, 순자를 대하는 데이빗의 태도 역시 확연히 달라졌다. 레슬링 경기를 보는 순자에게 자신의 오줌을 먹이고, 진짜 할머니 같지 않다고 이야기하던 것과 달리 순자와 데이빗이 함께 텔레비전 앞에 앉아 레슬링 경기를 시청한다. 그녀에게 죽음에 대한 자신의 두려움을 드러내고 순자의 품에 안겨 잠에 든다. 이쯤에서 ‘수용’을 기반으로 한 관계 중심의 돌봄 윤리를 정리하면, 돌봄자는 피돌봄자에의 전념을 통해 타자를 수용하고 피돌봄자는 돌봄자의 돌봄을 파악하고 이를 수용하면서 이들의 돌봄 관계가 비로소 완성된다.²³⁾

23) N. Noddings, 앞의 책, 87-95쪽.

(집 반대쪽으로 걸어가는 순자)

앤과 데이빗: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어디가요?

(순자를 향해 뛰어가 순자 앞에 팔을 뻗고 막아서는 데이빗)

앤: 할머니 이쪽 아니에요. 할머니 우리 집은 저쪽이에요.

데이빗: 할머니 가지마세요. 우리랑 같이 집으로 가요

(울음을 터뜨린 순자)

데이빗의 손을 잡고 앤의 부축을 받으며 집으로 향하는 세 사람

뇌졸중을 진단받아 신체의 일부를 자유로이 쓰지 못하게 된 순자의 실수로 제이콥의 농작물 창고에 불이 붙었고, 가족들은 불에 타고 있는 창고를 보며 망연자실한다. 연신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던 순자는 마치 자신이 사라지는 것이 가족들을 도와주는 것인 양 발걸음을 집 반대쪽으로 돌려 걸어간다. 그간 심장에 대한 걱정 때문에 태어나서 한 번도 뛰어본 적 없는 데이빗이 힘껏 달려가 순자를 막아선다. “할머니, 가지마세요. 우리랑 같이 집으로 가요”라고 이야기하며 순자에게 손을 건네자 순자는 울음을 터뜨리며 가족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표출하고 앤과 데이빗은 그런 순자를 부축하며 함께 집으로 돌아간다.

나딩스는 돌봄 관계에서 피돌봄자는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있으므로 돌봄자와 피돌봄자의 관계는 불평등한 관계라 설명한다. 하지만 돌봄을 하는 자와 돌봄 받는 자의 관계가 영원하지 않다는 점을 이야기하며 돌봄을 행하는 돌봄자 역시 잠재적으로 돌봄을 받는 자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²⁴⁾ 데이빗은 뛰는 것을 두려워하던 아이였으나 순자의 돌봄을 통해 멀어지는 순자의 뒷모습을 보며 그간의 두려움은 잊은 듯 뛰어가 순자를 잡을 수 있는 존재로 성장했다. 그리고 뇌졸중으로 신체를 제대

24) 김민영, 「배려 윤리에서 배려 받는 자의 중요성」, 『대동철학』, 제93권, 대동철학회, 2020, 31쪽.

로 가누지 못해 찰나의 실수로 집에 불을 내 가족들에게 미안함, 면목없음 등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순자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우리는 할머니가 필요해요’라는 메시지를 통해 그녀를 위로하고 돌보고 있는 것이다.

순자: ‘스트롱’, ‘스트롱 보이’

(데이빗이 놀란다)

순자: 왜? 이런 소리 처음 들어봤어? 데이빗아, 너는 ‘스트롱 보이’야. 할머니가 본 사람 중에서 제일 ‘스트롱 보이’야.

데이빗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 때 순자는 데이빗에게 ‘너는 스트롱 보이야’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순자의 돌봄은 최종적으로 ‘(마음이 단단하고) 강한 아이’로의 성장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이어진다. ‘뛰면 안될 것만 같다’고 걱정하고 죽음에 대한 불안에 떨었던 데이빗은 순자의 돌봄을 통해 결국 스스로를 믿는 힘을 갖게 된다. 그렇게 성장한 데이빗과 순자에게는 새로운 돌봄 관계가 형성되는데, 영화 내내 돌봄자와 피돌봄자였던 조부모와 손자라는 종적 관계의 경계가 흐릿해지며 이들은 서로 돌봄을 주고받는다.

순자와 데이빗 그리고 앤은 서로 ‘도움이 필요한’ 상대에게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며 돌봄을 주고받는 상호 돌봄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다. 순자의 실수로 인한 불은 결국 제이콥의 농작물을 모두 태웠고, 이들 가족은 이제 말라버린 물탱크를 채울 돈을 벌 수도 없게 되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가족들은 트레일러의 거실에 오순도순 함께 누워 자면서 순자와 진정한 가족애를 다지게 된다.

가족 내에서 큰 문제가 발생한 후, 이를 해결해나가며 결국 가족애를 회복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 가족 중심 주의 혹은 가족 이데올로기적 해

결 방법에 그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미나리>는 다른 문화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이민자들끼리 합심하여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과는 결을 달리한다.

이 지점에서 ‘제이콥’과 ‘순자’ 그리고 ‘데이빗’의 태도의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화재 이후 제이콥은 그동안 순자와 데이빗이 함께 다니던 숲속으로 들어가 보는데, 그곳에서 순자가 심어둔 미나리가 건강하게 뿌리내려 파랗게 자라있는 것을 발견한다. 제이콥은 미국 땅에서 한국 농작물을 재배하며 ‘한국적인 방식’, ‘우리만의 방식’을 고수한다. 이웃인 ‘폴’이 아칸소의 방식으로 도와주겠다고 조언하지만 미국의 농업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는 독불장군 같은 태도를 유지한다. 이러한 제이콥의 태도는 결국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이다.

반대로 <미나리>를 관통하는 순자의 태도는 나딩스의 ‘수용성’과 맞닿아 있다. 순자는 한국에서 미나리 씨앗을 들고 오는데, 한국의 토양이 아니라며 불평하는 제이콥과는 달리 미국의 땅에서 미나리가 자라기에 적당한 환경을 찾아 미나리를 건강하게 뿌리내리는 데 성공한다. 그제서야 제이콥은 “할머니가 좋은 흙을 찾았네”라고 인정하며 순자가 심은 미나리를 통해 살길을 모색하고, 이웃인 ‘폴’의 도움을 받아 새로이 농사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인다.

순자는 데이빗을 대할 때도 자기 세대의 가치관을 고수하지 않는다. 데이빗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을 통해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여 피돌봄자가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게 노력한다. 데이빗은 할머니가 건네는 한약, 깨물어 주는 밤 등 순자가 건네는 한국식의 낯선 돌봄에 거부감을 보이며 돌봄을 수용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존재를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순자의 돌봄을 수용한다. 이를 통해 데이빗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신체적·정신적 성숙을 이룬 뒤, 그간 자신을 돌봐주던 순자에게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그녀에게 돌봄을 건넬 수 있는 존재로 성장하게 되었다. 순자와 데이빗 사이에 존재하던 세대와 문화의 간극은 서로에 대한 진심 어린 수용에서 비롯된 상호 돌봄을 통해 비로소 메워지게 된 것이다. 결국 <미나리>는 이방인들끼리 합심하여 가족주의적 따뜻함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타자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수용과 다름에 대한 유연한 태도가 문화와 세대, 종적-횡적 두 축의 가림막을 걷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문화 전승을 통한 돌봄과 혼종적 정체성의 확립: <호랑이를 덮에 가두면>

다음으로는 <호랑이를 덮에 가두면>(이하 <호랑이>)에 나타난 문화적 돌봄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이민자 서사에서 발생하는 세대 간 돌봄에서 주요한 돌봄의 기제로 활용되는 자원은 ‘문화’이다. <미나리>의 할머니 순자와 <호랑이>의 할머니 애자는 모두 자신의 손주들에게 한국식 양육이나 생활을 보여주고, 이것이 데이빗과 릴리에게는 모두 자신들의 혼종적 정체성을 긍정하고 정착의 힘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된다.

소설은 릴리네 가족이 원래 살던 캘리포니아에서 할머니가 살고 있는 ‘선뎀’으로 이사를 오며 이야기가 시작된다. 릴리네 가족이 병을 앓고 있는 할머니를 돌보기 위해 할머니의 동네로 이사를 온다는 설정은 ‘아픈 노인의 돌봄’이라는 전형적인 모티프로 보인다.

하지만 가족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애초부터 세 모녀와 할머니의 관계는 상호 돌봄의 특성을 띠고 있다. 남편을 잃은 릴리의 엄마 그리고 아버

지를 잃은 릴리의 언니 샘과 릴리는 당시 힘들었던 시기에 할머니의 돌봄을 통해 그 슬픔을 극복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작품의 주인공인 릴리와 할머니의 관계는 보다 적극적인 상호 돌봄 및 상호 수용의 모습을 보여준다.

주지하였듯 나딩스는 돌봄자가 피돌봄자에게 가지는 태도 중 하나를 ‘전념’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이성과 합리성에 기반한 배려가 아닌 타자와의 실존적 공존에 근거해 발생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일상적인 말로 설명하자면, 타자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에서 전념이 시작된다.

투명 인간으로 변하는 내 능력이 할머니 앞에서만은 아무런 소용 없어진다.(36)²⁵⁾

내가 실재를 호랑이를 보았건 꿈이었던 건 아니면 정신이 이상하건, 할머니에게 말해야겠다. 할머니는 귀를 기울일 것이다. 나를 도와줄 것이다.(16)

릴리의 언니 샘은 미국의 학교 환경 중에서도 주류를 이루는 모습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자신을 정체화하고,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릴리를 향해 ‘조아여’ 즉, ‘조용한 아시아 여자애’라고 부른다. 릴리 역시 자신에게는 ‘투명 인간’이 되는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하며, 스스로를 조용한 성격의 존재감 없는 아이로 인식하고 있다. 정확히는, 자조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조아여’나 ‘투명 인간’ 등의 표현은 릴리가 자신을 이방인으로 위치 짓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위의 인용에서 볼 수 있듯이 할머니는 릴리를 투명 인간으로 만들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다. 어느 순간부터 릴리는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

25) 『호랑이를 뒷에 가두면』의 일부분을 직접 인용할 때 괄호 안에 쪽수를 표기하였음을 밝힌다.

는 아주 커다란 호랑이를 일상에서 보게 된다. 누구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은 갑자기 만난 호랑이에 대해서 릴리가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역시 할머니이다. 이는 할머니가 어떠한 편견 없이 릴리를 있는 그 자체로 바라봐 주는 사람임을 의미한다.

나딩스는 '자신의 실재'에서 '타자의 실재'로 관심이 이동하는 것을 돌봄 윤리의 시작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르면 할머니가 릴리를 있는 그대로 봐 주는 것은 두 사람 사이에 싹트는 돌봄 윤리의 출발점인 셈이다. 또한 릴리 역시 할머니가 자신을 돌보기 위해서 하는 행위를 '기꺼이' 받아들이는데 이는 할머니의 전념이 릴리의 수용을 이끌어낸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수용의 모습이 잘 드러나는 것은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는 릴리의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진정한 돌봄 관계의 전제에 '수용성'이 있다면, <호랑이>에서 이러한 '수용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릴리의 눈에 자꾸만 보이는 '호랑이'라고 볼 수 있다. '호랑이'는 이 작품의 중요한 세 번째 주인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작품 속에서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여러 역할을 수행한다. 호랑이는 1) 대대로 이어지는 한국인의 정체성을 상징하기도 하고, 2) 가부장제에서 핍박받아 온 여성을 의미하기도 하며, 3) 릴리의 그림자를 상징하기도 한다.²⁶⁾ 여기서는 1의 의미에 주목하여 2,3을 통해 형성된 돌봄과 연대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릴리의 할머니가 릴리와 샘에게 들려주는 "옛날 옛날에"로 시작하는 이야기는 "한국식"(17)의 전래 동화²⁷⁾이다. 릴리와 샘은 "할머니가 캘리포

26) 우정인, 앞의 글, 9-12쪽.

27) 서구의 민담이나 전래동화에는 늑대나 여우가 많이 등장하고, 일본이나 필리핀의 경우엔 원숭이가 많이 등장하는 반면, 우리의 경우엔 호랑이가 많이 등장한다. (손동인, 『한국 전래 동화 연구』, 서울: 정음문화사, 1984, 355쪽.)

니아”로 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몇 주 전부터 서로에게 이 말을 속삭”(17)이며 할머니를 기다려왔다.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는 먼 타국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일부이기도 한 한국을 떠올리게 하고 더 나아가 할머니와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기반이 된다. 릴리가 남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호랑이’를 보고 난 후, 할머니에게 이를 이야기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도 한국을 떠올리게 하는 ‘호랑이’에 관해서라면 할머니는 틀림없이 자신을 믿어줄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줄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할머니가 자주 들려주고, 릴리 자매가 가장 좋아했던 “언니아(Unya)-애기(Eggi)”가 나오는 호랑이 이야기에 대해 릴리는 “언니와 동생이라는 뜻의 그 한국어 낱말들 너머에 반짝이는 비밀이 숨어 있는 것 같”(18)다고 말한다. 이처럼 릴리는 할머니가 들려주던 한국의 전래 동화에서 “반짝이는 비밀”을 느끼고 있는데, 이는 아마도 후반부에 릴리가 찾게 되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암시일 것이다.

할머니가 ‘전통’을 중요시하는 것을 엄마는 늘 못 견뎌한다.(40)

할머니가 내게 고사 지내는 법을 처음 가르쳐 준 것이 언제였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 고사는 우리가 늘 함께 해 온 일이다. 우리는 영혼들과 조상들을 위해 음식을 차리고, 그들이 배부르게 먹게 한 다음에 그 음식을 우리도 먹는다. “먼저 간 사람들 위한 거”라고 할머니는 늘 설명했다.

아주 어릴 때 나는 고사를 지내면 하늘에서 아빠가 찾아온다고 상상하곤 했다. 아빠가 우리와 같이 그 음식들을 먹으러 온다고 말이다. 그런데 그걸 언니에게 말하는 실수를 하고 말았다. 내가 고사 음식을 아빠가 먹을 거라고 말하자, 언니는 얼굴이 일그러져서 쏘아붙였다.

“아빠는 죽었어. 이진 놀이 야냐.”

그다음부터 언니는 늘 고사를 좋아하지 않았다.(41)

“아니, 아니. 오늘 ‘길일’ 아니야. 나는 저거 운 좋은 날 날랐어. 오늘은 영
혼들한테 위험한 날이야. 다른 날 옮겨.”(39)

할머니는 미국에 거주하면서도 늘 “전통”을 중요시”하는데, 특히 할머니가 고수하는 ‘고사’, ‘길일’ 등은 동양의 샤머니즘 문화²⁸⁾를 보여준다. 하지만 미국 문화에서 생경한 동양식 샤머니즘은 낯설게 보이기 마련이고, 미국 주류 문화에 동화되는 방식으로 자신을 정체화하고자 하는 릴리의 엄마와 샘에게는 이러한 할머니의 모습은 전혀 달갑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와 달리 릴리는 ‘먼저 간 사람들을 위한 거’라고 설명하는 할머니의 말에 죽은 아빠가 찾아오는 것을 상상하며, 할머니가 고사 음식을 차리는 마음과 동화되지만 샘은 이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

할머니와 릴리가 가족 구성원 중에서 보다 특별한 돌봄을 교환하고, ‘호랑이’로 상징되는 세대 간의 만남과 대물림되는 운명을 공유하는 데에는 이러한 수용적인 태도가 원인으로 작용한다. 요컨대 이 작품에서 세대 간 문화적 돌봄 양상의 종적 축인 ‘세대’와 횡적 축인 ‘문화’는 순환적인 연결 고리를 갖고 있다.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문화’를 통한 돌봄이 시도되며, 그것을 피돌봄자가 수용할 때 돌봄 관계는 전념을 기반으로 진정한 돌봄

28) “샤머니즘은 만주·시베리아 또는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에 유래를 두고 있지만 세계 어느 곳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인류 보편적 현상으로서 주술과 제의를 특징으로 하는 원시 종교현상과 이와 관련된 제반 문화현상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중략) 한국 무교의 특징인 주술과 제의적 속성을 비롯하여 이것이 민간 생활속에 스며들어 민속의 한 부분으로 정착한 속성들, 이를테면 각종 금기, 기복, 벽사, 치병, 예언, 유희적 요소들, 그리고 신화와 전설, 민간설화 속에 내포된 다양한 무속적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것이다.” (김주성, 「황순원 소설의 샤머니즘 수용양상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22쪽.)

으로 나아가게 된다. 또한 ‘문화’의 수용을 통해 두 돌봄 주체 간에 유대의 기반이 마련되어 상호 돌봄의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일방향에서 양방향으로 돌봄 행위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릴리가 할머니의 돌봄을 수용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양방향으로의 돌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음 대목을 살펴보자.

지금까지 나는 고사를, 그리고 할머니의 다른 믿음과 의례들을 늘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할머니가 믿는다면 다른 이유는 필요 없었다. 할머니의 마법에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호랑이를 보고 난 지금, 난 이 모든 걸 제대로 이해해야 할 것 같다.(42)

할머니가 믿는다면 다른 설명을 들을 필요 없이 할머니의 의례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는 릴리의 말은 피돌봄자의 수용적 태도가 돌봄자-피돌봄자, 즉 할머니-릴리 간의 깊은 유대를 어떻게 가능하게 했는지 보여준다. 하지만 릴리네가 할머니를 돌보기로 한 시점에 릴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 즉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호랑이’가 나타나면서 릴리의 믿음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다. 선행연구의 분석대로 이는 릴리가 진정한 자아를 찾아야 할 때이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본 연구가 주목하는 돌봄의 테마에서도 릴리가 선뎀으로 오면서 할머니가 행했던 그간의 돌봄, 특히 문화적인 돌봄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하며 제대로 이해하고 싶어 하는 것은 릴리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릴리가 자신의 자아 정체성을 찾는 것이 곧 할머니와 릴리 사이의 돌봄 관계를 전환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피돌봄자였던 릴리가 돌봄자가 되는 것은 할머니가 자신에게 주었던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과정을 통해 발생한다. 이는 나딩스가 이야기한 피돌봄자의 수용성 이상의 이해라고 볼 수 있다. 돌봄을 수용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

나라, 돌봄 관계에서 성장한 피돌봄자가 돌봄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조롱의 뜻이 담긴 ‘조용한 아시아 여자애’라는 말로 자신을 설명하고,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투명 인간’이 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던 릴리의 모습은 미국 사회에서 이방인인 그녀가 경험한 정체성의 혼란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지만 자신을 온전히 믿어주는 할머니의 돌봄을 수용하며 그간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던 할머니의 문화 즉, 한국의 전통 문화에 관심을 보이는데 이는 자신의 뿌리에 대한 탐구인 셈이다. 릴리는 할머니의 문화적 돌봄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오롯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돌볼 수 있는 이로 성장하게 된다.

“처음엔 여기서 지내는 게 좋았어. 할머니가 우리 슬플 때 챙겨 주시고 엄마도 도와주셨으니까. 그런데 할머니는 늘 뭔가 이상한 일들을 하셨어. 아무런 설명도 없이. 할머니는 정말 비밀투성이야. 이 집은 비밀투성이야.”(30, 샘의 말)

“좋은 분이지. 처음 이사 오셨을 때 확실히 이 마을 체계에 충격을 주셨어. 나는 그분한테 빗을 졌지만 말이야. 그리고 존이 네 어머니지? 어릴 때 애자를 만날 따라다녔는데.”(74, 조의 말)

“너희 할머니 알아. 모두가 좋아하는 분이지.”

“정말요?”

젠슨이 내 반응에 조금 어리둥절한 듯 고개를 갸웃하고는 말한다.

“당연하지. 정말 친절하시고 재미있으시고, 그리고 옷차림이 진짜 멋져, 늘.”

마음에 자랑스러움이 밀려든다. 모두가 좋아하는 것이 당연하지, 그럼.

우리 할머니를 어떻게 안 좋아해.

하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좀 조여들기도 한다. 나는 이곳 선빔에서의 할

머니 삶을 하나도 모른다. 유아 시절을 빼면 내가 아는 나의 할머니는 캘리포니아에서의 할머니뿐이었다. 그리고 할머니는 오로지 우리를 보러 캘리포니아에 왔다. 그러니까 내내 '우리만의 할머니'였다. (77, 켄슨과의 대화)

릴리의 가족 및 마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다가도 이내 할머니를 사랑하게 되고 마는 데에는 할머니가 중요시 여기는 '전통'이 늘 자리 잡고 있다. 할머니는 어린 시절 한국을 떠나왔지만 한국적 샤머니즘의 요소들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다. 고사나 길일 같은 풍습과 김치 같은 음식, 그리고 할머니가 릴리 자매에게 해주는 해님달님 이야기는 모두 한국의 문화를 담고 있다.

물론 할머니가 돌봄자로서 보이는 여러 특성들이 오롯이 한국 문화에서만 기인한 것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할머니는 이방인으로서 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강한 적응력과 생존력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뿌리내렸을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낯선 이국 문화에 동화되기를 택하기보다 자신이 가진 한국인의 정체성과 문화를 자신만의 고유한 매력으로 승화시킨 것이 릴리의 할머니가 지닌 자기의 '이야기'이며 '힘'이다.

그리고 그 힘이 문화를 기반으로 릴리에게도 전승된다. 어쩌면 중요한 것은 '고사'나 '길일' 그 자체가 아니라 낯선 사람들과 문화 속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잃지 않고, 지키고자 했던 그 노력 자체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민자 서사에서 세대 간 문화적 돌봄은 이 지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세대 간에 전승되는 문화가 존재하고, 그 문화를 통해 연대와 유대를 쌓는 것이야말로 이민자로서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며, 세대 간의 돌봄이 가능한 전제이자 결과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조손 관계를 떠올리면, 당연히 조부모가 손자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1차적으로 떠오르고, 릴리와 할머니의 관계도 그러했다. 할

머니가 '우리만의 할머니'였다고 이야기하는 릴리의 말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선뱀에서의 할머니의 삶"이 있고, 그 삶에서의 할머니를 생각해보게 되는 것은 릴리로 하여금 할머니, 즉 애자라는 사람 자체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한다. 지금까지는 애자가 릴리에게 전념을 해왔지만, 릴리가 애자에게 전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 사람 자체에 대해 진정성 있는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진정한 돌봄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즉, 이는 두 사람의 관계가 전치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할머니를 보살피느라 바쁘기 때문이다. 할머니의 입술을 휴지로 닦고 할머니의 등을 문지른다.

언니와 내가 탈이 나서 토할 때 엄마가 저렇게 했었다.(110)

하지만 그때 우린 어린애들이었다. 그리고 할머니는 엄마의 엄마다. 그러니까 모든게 뒤집힌 것이다.(111)

특히 <미나리>의 순자와 <호랑이>의 애자 모두 병을 앓고 있는 노인이다. 그런 점에서 직접적 돌봄이 발생하는 세대 간의 돌봄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필연적으로 돌봄의 방향성이 바뀔 수밖에 없다. 이때의 돌봄이란 물론 물질적이고 물리적 돌봄이라는 기반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돌봄의 관계적 특성을 고려할 때, 돌봄 주체 간의 수용과 전념이 가장 중요한 태도이며 핵심적이다. 할머니는 릴리가 자기 자신으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돌봄을 건넸고, 릴리는 그러한 할머니의 마음을 수용하였다. 그 돌봄의 의미에 더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메타적 인식까지 합해져 피돌봄자였던 릴리가 오히려 할머니에게 돌봄을 행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세대 간의 돌봄은 서로에 대한 전념이며, 또 그것을 기꺼이

수용하는 데에서 진정한 관계가 시작된다.

“어떤 이야기 들으면 사람들 기분 나빠지고 행동 나빠져. 어떤 이야기 들으며 나 슬퍼지고 작아져.”

나는 입술을 깨문다. 할머니가 우리에게 해 준 이야기들은 결말이 늘 행복했다. 똑똑한 여자아이들과 사랑 가득한 가족들이 나오고, 전투사 공주들이 누군가를 구해 냈다.

“우리 할머니가 나한테 슬픈 이야기, 우리 한국 역사 이야기하면서 울었어. 그러면 이웃들은 무서워하고 친구들은 화냈어.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 왜 우리는 나쁜 이야기 꼭 들어야 해? 나쁜 이야기는 그냥 없어지는 게 좋지 않아?”(63)

“그건 그때 호랑이 여인이 틀렸던 거야. 살다 보니 자기가 호랑이 쪽 자신도 꽤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됐거든. 그래서 이젠 호랑이 여인도 알아, 우리가 다들 하나 이상의 존재일 수 있다는 걸. 강하기만 하다면 우린 가슴에 하나보다 더 많은 진실을 품을 수 있어.”(302)

“내가 우리 애자를 치유해 줄 거라고 약속했지만, 치유라는 게 꼭 질병이 치료된다는 뜻은 아니야. 이해하게 된다는 뜻일 때가 많지. 자기 이야기 전체를 받아들이면, 자기 심장 전체를 이해할 수 있어.”(303)

“네 역사를 통해서 네가 어디서 왔고 누구인지 이해한 다음에, 너 스스로의 이야기를 찾아봐. 네가 어떻게 될 것인지 직접 지어 봐.”(303)

미국 아이들의 눈에 ‘이상하게’ 비치고, 때로 손주들 역시 이해할 수 없는 한국 할머니들이 결국 데이빗과 릴리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말은 ‘너는 강한 아이’라는 메시지이다. 물론 이 강함은 외부로 드러나는 힘의 강함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지닌 내면의 강함

을 말하는 것이다.

이민자 서사에서 세대 간 문화적 돌봄이 중요한 모티프가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지점이다. 정이삭 감독은 “국적에 관해서라면 나는 마치 고아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미국에 살면서, 영어로 말하고 어려움 없이 돌아다녔지만, 정신적으로는 늘 한국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반대로 한국에서 지낼 땐 한국어로는 나 자신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고 다른 한국인들과 같은 삶의 경험을 공유할 수도 없다는 걸 깨닫는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 어느 정도의 소외감을 느낄 것이다”²⁹⁾라고 이야기하며, 자신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국가 정체성 중 굳이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음을 이야기한다. 테 켈러는 대학에 다닐 때 “한국인이냐”는 질문에 “4분의 1만 한국인”이라고 대답하자마자 ‘잘못된 대답’이라 느꼈음을 책의 저자의 말³⁰⁾에서 고백하고 있다. 자신은 나뉘지 않은 완전한 ‘나’라는 깨달음은 한국과 미국 중 하나를 택함으로써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자신임을 인정하는 데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듯 문화 전승에 기반한 세대 간 돌봄은 어느 하나의 정체성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나의 모든 이야기와 문화, 즉 혼종적인 자아 정체성을 긍정하는 데로 이끈다. 이 지점에서 <미나리>와 <호랑이>는 세대를 넘어서서, 시대와 국경을 넘어서 돌봄을 실천하는 매개가 된다.

29) <‘미나리’ 정이삭 감독- <미나리>는 보편적인 모든 인간들을 위한 영화다>, 『씨네 21』, 2021.03.05., 접속일: 2024.08.20., 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97285.

30) 테 켈러, 앞의 책, 326쪽.

4. 결론 - 새로운 돌봄을 위하여

이 연구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이민자 서사에서 공통적으로 세대 간 문화적 돌봄이 나타난다고 보고, 이를 기제로 텍스트를 분석하여 ‘돌봄’이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 주는 의미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대상 작품들은 〈미나리〉와 〈호랑이를 뒷에 가두면〉으로 이민 3세대를 주인공으로 하여, 낯선 한국 문화를 가진 할머니를 만나 서로 돌봄을 주고 받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각각의 작품에서 이뤄지는 상호 돌봄의 세부적인 양상에는 차이가 있으나, 큰 틀에서 두 작품의 돌봄 양상은 공통점을 보인다. 〈미나리〉의 순자와 〈호랑이〉의 애자가 이민 3세대의 손자들에게 행하는 돌봄의 양상을 살펴보면 자신이 경험한 한국의 전통 문화만을 강조하거나, 그들 세대의 가치관을 주입하는 일방향으로 이루어지는 돌봄이 아니었다. 피돌봄자인 손자에게 전념하며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너는 강한 아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피돌봄자는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돌봄을 행할 수 있는 존재로 성장하고 상호 돌봄의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두 작품 모두 가족 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 가족 중심 주의, 가족 이데올로기를 강조한다는 비판도 물론 존재한다. 다만, 본고에서 주목하는 돌봄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이는 특정 ‘민족’, ‘가족’, ‘세대’의 문제로 한정되지 않는다. 이 작품들이 주목을 받는 것은 바로 이러한 지점에서 보편의 정서를 가지기 때문이 아닐까. ‘다른 것’을 배척하는 배타적인 태도가 아니라 타자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며 상호 돌봄으로 이어지는 관계가 바로 그것이다.

‘돌봄’이 가정에서의 일로 한정되었던 과거와 달리 사회적·정치적 제도

의 영역으로 확장되어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 복지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다. 다만 시혜적 성격의 돌봄이 되지 않도록 타자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을 바탕으로 타자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태도가 바탕이 되어야 진정한 돌봄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역시 중요히 여겨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정이삭 감독, <미나리>, Plan B Entertainment, 2020.
태 켈러, 『호랑이를 밋에 가두면』, 강나은 옮김, 돌베개, 2021.

2. 논문과 단행본

- 강나경, 「할리우드의 제국주의적 응시 : 영화 <미나리>를 중심으로」, 『아시아영화연구』 제15권 1호, 부산대학교 영화연구소, 2022, 123-146쪽.
- 강옥희, 「이산·동화·개척의 서사-〈미나리〉」, 『국제한인문학연구』 제30호, 국제한인문학회, 2021, 97-121쪽.
- 김미영, 「인물 분석을 통해 본 영화 <Minari>(2020)의 구조와 의미」, 『인문논총』 제79권 3호,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2, 327-356쪽.
- 김민영, 「배려 윤리에서 배려 받는 자의 중요성」, 『대동철학』 제93권, 대동철학회, 2020, 21-40쪽.
- 김영선, 「디아스포라 소설에서 ‘구조’와 ‘원형’의 의미 - 태 켈러의 장편소설 『호랑이를 밋에 가두면』을 중심으로」, 『리터러시 연구』 제12권 6호, 한국리터러시학회, 2021, 655-679쪽.
- 김유미, 「한국계 미국 청소년의 정체성과 미국 사회의 불공정성 - 『호랑이를 밋에 가두면』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제59호, 이화어문학회, 2023, 95-115쪽.
- 김주성, 「황순원 소설의 샤머니즘 수용양상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김희강, 『돌봄민주국가』, 서울: 박영사, 2022.
- 남미순, 「나딩스의 여성중심적 돌봄 윤리를 넘어서」, 『범한철학』 제81권 2호, 범한철학회, 2016, 325-350쪽.
- 류연지, 「양성성의 획득을 통한 자기 형성: 『호랑이를 밋에 가두면』을 중심으로」, 『현대영미어문학』 제42권 1호, 현대영미어문학회, 2024, 21-49쪽.
- 마경희, 「돌봄의 정치적 윤리: 돌봄과 정의의 이원론을 넘어」, 『한국사회정책』 제17권 3호, 한국사회정책학회, 2010, 319-348쪽.

- 손동인, 『한국 전래 동화 연구』, 서울: 정음문화사, 1984.
- 안미영, 「영화 〈미나리〉에 구현된 '가족 신화' 분석 - 토포필리아의 구현과 가장(家長)의 수행성」, 『비평문학』 제81호, 한국비평문학회, 2021, 99-126쪽.
- 우정인, 「소설 『호랑이를 뒀에 가두면』에 나타난 옛이야기의 힘과 리미널리티 공간」, 『세계문학비교연구』 제78권, 세계문학비교학회, 2022, 5-27쪽.
- 위종선, 「『호랑이를 뒀에 가두면』에 나타난 마술적 사실주의의 활용과 의의」, 『아동청소년문학연구』 제30호,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22, 73-103쪽.
- 이지은·이주봉, 「〈미나리〉에 구현된 헤테로토피아와 공간적 성격」, 『현대영화연구』 제50권, 한양대학교 현대영화연구소, 2023, 139-162쪽.
- 이채원, 「영화 〈미나리〉에 나타난 디아스포라의 문제적 징후들과 내포된 담론들」, 『한국문예비평연구』 제77권,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23, 7-29쪽.
- 이형빈, 「'돌봄의 교육'을 위한 시론: 교사-학생 관계, 학교문화, 교육과정으로서의 돌봄」, 『교육비평』 제52호, 교육비평, 2023, 103-136쪽.
- 이혜정, 「나딩스의 보살핌 윤리 연구」, 『인문학연구』 제7권, 한국외국어대학교 철학문화연구소, 2002, 205-232쪽.
- 장희권, 「경계넘기의 서사적 재현으로서의 디아스포라 문학」, 『독일언어문학』 제71권, 한국독일언어학회, 2016, 181-205쪽.
- 조성미, 「『호랑이를 뒀에 가두면』에 나타난 두 세계의 갈등과 화해: 융(Jung)의 분석심리학을 바탕으로」,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제13권 1호,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2024, 531-555쪽.
- 주현식, 「영화 〈미나리〉의 진정성과 환대의 윤리학」, 『스토리앤이미지텔링』 제23집, 건국대학교 스토리앤이미지텔링연구소, 2022, 285-308쪽.
- 진수현, 「영화 〈미나리〉에 재현된 이주민의 적응과 생존의 삶」, 『다문화콘텐츠연구』 제44집,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23, 199-224쪽.
- 최수용, 「미주 한인 이주서사의 상징 활용 양상」, 『문화와 융합』 제44권 4호, 한국문화융합학회, 2022, 491-506쪽.
- 최영희·유봉근, 「자전적 영화로서 정이삭의 〈미나리〉(2020) 연구: 벤야민의 '삶을 구성하는 힘' 개념을 중심으로」, 『아시아영화연구』 제15권 1호, 부산대학교 영화연구소, 2022, 209-240쪽.

- 허라금, 「관계적 돌봄의 철학: '필요의 노동'을 넘어 '정치적 행위'로」, 『사회와 철학』 제 35호, 사회와철학연구회, 2018, 67-90쪽.
- 황혜진, 「호랑이 여자들이 보여주는 고전문학교육의 길- 호랑이를 뺏아 가두면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47호,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23, 249-284쪽.
- D. Engster, *The heart of justice: Care ethics and political theory*, OUP Oxford, 2007.
- E. F. Kittay, *Love's labor: Essays on women, equality and dependency*, New York: Routledge, 1998.
- J. C. Tronto, *Who cares?: how to reshape a democratic politics*, Cornell University Press, 2015.
- M. Mayeroff, *On Caring*, New York: Harper and Row, 1971.
- N. Noddings, 『배려』, 한평수 옮김, 천지, 2009.
- V. Held, *The ethics of care: Personal, political, and global*,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3. 기타자료

- 〈'미나리' 정이삭 감독- 〈미나리〉는 보편적인 모든 인간들을 위한 영화다〉, 『씨네 21』, 2021.03.05.
- 〈태 켈러·스테프 차...뿌리 찾아온 한국계 작가들의 소설〉, 『연합뉴스』, 2021.04.28.
- 〈옛날 옛적 담배 피우던 호랑이, 내겐 정체성을 물려줬지〉, 『경향신문』, 2022.10.10.

Abstract

A Study on Intergenerational Cultural Care Dynamics in Immigrant Narratives

- Focusing on the film <Minari> and the novel <When you
Trap a Tiger>

Lee, Min-Gyeong(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posits that intergenerational cultural care is commonly found in recent immigrant narratives that have gained significant attention. By analyzing texts using this framework, this study aims to derive the implications of 'care' as a crucial keyword in contemporary society. The ultimate goal is to clearly delineate the blueprint of the care paradigm required in the new era as presented in popular narratives.

The target works feature third-generation Korean immigrants born overseas as protagonists within Korean families settled abroad. They depict interactions where these grandchildren meet their grandmothers, who have unfamiliar Korean cultures, and engage in mutual care. The generational and cultural intersection, stemming from the grandparent-grandchild relationship and the differing cultural backgrounds, enriches the meaning of the care exchanged between the characters. Examining the care provided by Soon-ja in <Minari> and Ae-ja in <When you Trap a Tiger> to their third-generation grandsons reveals that their caregiving is not one-sided, imposing traditional Korean culture or their generational values. Instead, they dedicate themselves to their grandchildren, accepting them as they are and conveying the message that 'you are a strong child.' Through this, the care recipients establish their self-identity, grow into beings capable of providing care, and form a mutually caring relationship. Based on Noddings' care ethics, which emphasizes that a care relationship is complete only when the care recipient

accepts the care, this study examines how both the caregiver and the care recipient become subjects of solidarity through receptivity and mutual care.

The discourse on care has shifted from the family to the societal and institutional levels. While institutional care based on needs is essential, care that embraces the other and offers genuine compassion remains equally important. By exploring immigrant narratives that depict how individuals from different cultures and generations care for one another, we can gain valuable insights into the true essence of 'care'.

(Keywords: Immigrant Narrative, Generational and Cultural Intersection, Cultural Care, Mutual Receptivity, Identity, Solidarity)

논문투고일 : 2024년 9월 7일
논문심사일 : 2024년 10월 14일
수정완료일 : 2024년 10월 15일
게재확정일 : 2024년 10월 18일